



AIDS, 올바른 예방법을 알아야 한다.



백승현

‘성(性) 문란에 대한 신의 형벌’ ‘세기 말의 병’ ‘29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우는 AIDS 때문에 지금 온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지구상의 모든 질병 중에서 AIDS만큼 인종과 생활습관, 성별, 나이, 문화수준 등을 가리지 않고 번져 가고 있는 병도 없다고 한다. 이같은 속도로 번져가다간 곧 B형 간염처럼 아주 흔한 병이 되고야 말 것이라는 불안도 많은 의견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로선 AIDS에 걸려 살아남은 사람은 없으며 1년 이내에 50%, 3년 이내에 75%, 5년 이내에 90%가 사망한다는 끔찍한 사망률 때문에 온 세계는 더욱 전율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 직후 일부 동성연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던 이 병이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사망자가 점차 증가되고 이성간의 성(性) 접촉이나 수혈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정부차원에서는 전 국민적인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홍보에

나섰으며 지난 ’87. 4. 1부터 우리협회의 전국 13개 시·도지부에 AIDS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88. 5. 1부터는 ’88년 올림픽을 기하여 세계 각국 나라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 우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도 AIDS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검사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1. AIDS 상담내용 분석 및 검사실적 현황

우리 협회에서는 AIDS의 올바른 홍보와 예방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상담소 설치와 함께 관리의사, 검사소장,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약 50여명을 대상으로 AIDS 상담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실무 담당자에게 검사법 및 관리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국민들도 서서히 AIDS 검사를 실시하는데 호응도를 높여가게 되었다.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한 ’88년 5월 이후 일반 내원자에게도 점차로 늘어났다.

(표1) 우리나라 연도별 감염 현황

(단위: 명)

'90. 12. 31. 현재

구 분	합 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성 별
항 체 양성자	131 (13)	1 (3)	4 (1)	9 (4)	22 (2)	37 (2)	54 (1)	4 (1)	남 : 111, 여 : 20 (8), (5)
환 자	7			1	3	1	2		남 : 5, 여 : 2

※ 사망 12명(환자 7명포함), 이민 1명, 현 관리인원 118명(남 103명, 여 15명)

* : ()는 사망자 및 이민자임.

남·여별로 구분하여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40.6% 높은 검사 참여율로 보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담실적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32.6%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도별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AIDS상담이 처음 실시된 '87년도에는 상담자가 5,0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8년도부터는 점차 그 수가 줄고 있는 듯이 보이나 아직도 AIDS에 대한 공포가 우리들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의 내용별로 분석하여 볼 때 증상에 대한 문의가 총 문의건수 43,242건중 10,482건(24.2%)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 전염경로가 9,000건(20.8%)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혹시 AIDS에 전염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상담사례를 알아보면 대체로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불법 음란비디

오나 외설 잡지 등을 통하여 알게된 잘못된 성행위 상식과 동료(친구) 또는 매춘부와 관계를 가진 후 자신에게 나타나는 조그만한 증상에도 두려움을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보여진다.

또한 해외출장을 다녀온 남편을 둔 주부들이 그들의 남편을 경계하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남편을 의심하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때 AIDS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홍보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

그럼 여기서 상담 내용중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증상 및 전염경로 등 예방에 대한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2. AIDS 증상

AIDS의 대표적인 증상은 몸무게가 심하게 줄고 고통스럽게 쇠약해지며 설사가 만성적으로 계속되고 지속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고열이 계속나며 호흡곤란을 보이는 것이다.

초기증상으로 미열이 계속되며 가벼운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표2) 아시아지역 환자 발생 현황

(단위: 명)

'90. 12. 31. 현재

순위	국명	환자수	비고	순위	국명	환자수	비고
1	일본	294		6	필리핀	37	
2	이스라엘	125		7	사우디아라비아	28	
3	태국	69		8	홍콩	27	
4	인도	52		9	카타르	23	
5	터키	37		10	싱가포르	21	

※순위 22 한국 : 7명

주 증상은

①몸무게가 갑자기 10% 이상 줄고(급격한 체중감소) ②1개월 이상 만성적인 설사가 나타나며 ③1개월 이상 지속적, 간헐적으로 열이 나타나는 것이다.

2차 증상은

①1개월 이상 계속되는 기침 ②온몸에 가려운 피부염이 나타나며 ③계속 발생되는 수포진과 구강 및 식도염이 생기며 ④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대상포진 ⑤귀밑,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온몸의 임파절종창 등이 있다.

이중 주증상이 두가지 이상있고 2차증상이 한 가지 이상 있을때는 AIDS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발표하고 있다.

3. 전염 경로

전염경로는 거의 100%가 환자의 혈액이나 정액속에 포함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혈관을 통해서 옮겨감으로써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AIDS 바이러스는 수혈, 주사기

나 침, 문신 새김 등으로 옮겨가거나 성교 및 임신으로 인한 수직 감염 등이 주된 전염경로라고 할 수 있다.

AID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동성연애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일반 남성이며 그밖에 여성과 어린이 순서로 나타난다.

4. 예방법

예방법으로는 주사기, 주사바늘, 침은 물론 면도기, 치과기구 등을, 지금까지 B형간염예방을 위해 1회용으로 사용해 왔던것 처럼 계속 1회용 사용을 준수하고 문신을 새기거나 귀볼을 뚫는 일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

AIDS 환자나 보균자(항체 양성자)와 악수나 가벼운 포옹을 하거나 수건이나 변기의 공동 사용으로는 AIDS가 전염되지 않는다.

AIDS 바이러스가 침이나 눈물에서도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고 비교적 깊은 Kiss는 AIDS 감염 위험이 없지 않으나 이를

통해 AIDS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더우기 AIDS 환자나 보균자(항체양성자) 옆에 앉거나 이들이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는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 안전한 성행위

- 가벼운 Kiss
- 포옹 및 맛사지
- 몸을 서로 문지르기
- 서로간의 자위행위
- 노출행위나 그와 비슷한 행위
- 텔레폰 Sex
- Sex 기구의 사용

* 주의 해야 할 성행위

- 비교적 깊은 Kiss
- 가벼운 anal Sex
- 콘돔, 살정제 등 약을 쓴 질 성교
- 상처난 피부의 방뇨

* 위험한 성행위

- 콘돔을 사용치 않는 질 성교
- 콘돔을 사용치 않는 농도가 짙은 anal Sex
- 성 도구를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기
- 오줌을 마시는 것
- 혈액의 접촉(문신 새기는 것, 수혈 및 주사기 등의 공동 사용)

무조건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성생활에서 AIDS에 감염됨을 알

수 있으므로 건전한 성교육과 홍보로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AIDS의 공포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5. AIDS 상담소 운영안내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우리 협회 전국 각 시·도지부에 AIDS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이 가능하며 그외 국립보건원 AIDS 관리센타 및 전국 보건소에서도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협회의 검사업무는 서울 및 대구지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지부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국립보건원 AIDS 관리센타 및 각 시·도 보건연구소 AIDS 관리센타 및 종합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상담 및 검사에 따른 제반내용은 절대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유지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부담없이 AIDS 관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AIDS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확한 예방지식 전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식하여 홍보 또는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담전문요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국민보건 증진의 일익을 기대하고자 한다.

〈필자=건협조사연구부〉